완도군, 농촌공간 정비 영농환경 조성 박차

구들장논 복원 등 총력전 귀농 귀촌 유입인구 유치

완도군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축사·빈집 유해시설 철거 및 귀농귀촌인 임대 주택 제공, 세계농업유산센터 조성 등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나섰다.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군민을 위한 영농활동 기반 환경이 조성될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유산지구 내 핵심 보전 구역에 위치한 축사, 빈집 등 유해 시설 철거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된 공간에는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 주택 제공 및 복원된 구들장논 제공으로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 숙원 사업인 복합문화시설 및 세계농업유산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도비 7억5000만원·군비 17억50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산도를 귀농귀촌 유입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며 "전통 농업, 문화경관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고 치유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군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50억원을 확보했다. 구들장논 재정비 등 영농활동 기반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완도군 제공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가족센터, 4월1일부터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는 4월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 탐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체성 인지와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부모·자녀관계 향상 도모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기획됐다.

영암왕인문화축제장 내 어린이 직업체험장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수사대, 화재구조단, 동물병원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들이 스스로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며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24일까지 영암군가족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61-463-2929)로 신청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진도군, 무료 화분 분갈이 행사

진도군이 진도 분재회와 함께 의신면 사천리에서 무료 화분 분갈이 행사를 개최했다.

진도분재회 회원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군민들에 무료로 분재 280개 분갈이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군민들에게 관상 산림 식물인 분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취미 생활인 분재를 소득 산업화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은 적정 시기에 분갈이를 하지 않아 식물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한 반려식물 가꾸기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이 진도 분재회와 함께 의신면 사천리에서 무료 화분 분갈이 행사를 개최했다. 진도분재회 회원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군민들에 무료로 분재 280개 분갈이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진도군 제공

군민정원사 역량강화 교육

신안군, 5월26일까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임자면 종합복지센터 교육장에서 '신안군 군민정원사 교육'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5월26일까지 1읍·면당 1회 5시간, 3회씩 9회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농사일로 바쁜 교육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임자 홍매화, 압해 애기동백, 도초 수국 등 1섬 1테마 수종과 정원수의 전정 및 관리법, 종자 및 영양번식, 병해충 관리 등이다. 정원을 가꾸는 전문성과 정원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다른 읍·면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해남군, 4월30일까지

해남군은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은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의 경우 ha당 14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의 경우 논(벼 등)은 ha당 5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원을 지급한다. 6회 이상 유기를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이행하고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올 12월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

영암군,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추진

2026년 판매액 1000억 목표

영암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저장·유통을 체계화하고 유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산지유통 규모화와 온라인 플랫폼 확장, 다각화된 수요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농협 주관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영암의 주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암 농산물 판매액을 지난해 332억원에서 오는 2026년에 1000억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지역먹거리를 통합 지원하는 전문 조직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먹거리 기획에서 생산, 공급, 제조, 판매까지 전담하고, 공공급식 분야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법인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내년 전문 법인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통해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명예 군민 후보자 선발

완도군, 4월14일까지 접수

완도군이 '제52회 완도 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의 상 및 명예 군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민의 상은 교육 및 문화 체육,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향토방위 및 질서, 안보 부문 등 총 4개 부문에서 부문별 1인을 선정한다.

명예 군민은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경제, 과학 등 군정 발전 및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오는 4월14일까지 완도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은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를 지참해야 한다.

군은 심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19일까지 확정, 5월31일 '제52회 완도군민의 날' 기념행사시 상과 증서를 수여한다.

'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제52회 군민의 날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행정지원과(061-550-5183)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최경철 기자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 25일 팡파르

숲속 버스킹·힐링 음악회

신록이 물드는 달마고도에서 25일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열린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이다.

달마고도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가 위치한 달마산에 조성된 17.74㎞의 둘레길이다. 중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 지게로 돌을 지어 나르고,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레 땅끝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을 복원해 사람이 가장 걷기 편한 걷기길로 조성됐다.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불리며 연간 수만명이 찾고 있으며 남도대표 걷기길은 물론 7시간 코스 전체 걷기길 완주자도 2만명이 넘어섰다.

'우리의 첫 봄, 달마고도와 함께'를 주제로 명품 수제길인 달마고도를 걸으며 여유로운 봄을 만끽해 볼수 있다.

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숲속 버스킹과 재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

노르딕워킹·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줍깅 챌린지,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축제 당일 해남읍과 송지면 서정마을 입구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해남군 문화관광홈페이지(tour.haenam.go.kr) 또는 해남군청 관광실(061-530-5159)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